

멕시코의 NAFTA 가입 이후 산업경쟁력 변화 분석

嚴富暎 · 姜丁實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研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地域研究를 주요 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40여 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 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연구,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巨視金融室, 貿易投資政策室(DDA연구팀, FTA연구팀, APEC연구팀), 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東北亞경제협력센터,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단기 研究報告書, 월간 『KIEP세계경제』, 반년간 『對外經濟研究』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長 安 忠 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역곡동 300-4
TEL : 02) 3460-1178, 1179 / FAX : 02) 3460-1144
URL : <http://www.kiep.go.kr>

멕시코의 NAFTA 가입 이후 산업경쟁력 변화 분석

嚴富暎 · 姜丁實

국문요약

멕시코는 1994년 1월 1일 발효된 NAFTA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함과 동시에 기존의 경제개혁 및 개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멕시코는 NAFTA 가입 후 상당한 교역증대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당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했던 국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는 데 근간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NAFTA 가입의 긍정적인 측면 중 특히 멕시코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먼저 NAFTA 가입을 전후로 수출경쟁력 변화를 비교해보았는데, 실제로 1994년 이후 많은 품목의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특히 단기간인 1994~98년에 현저하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았을 때, 2002년 현재 멕시코는 미국시장에서 자동차,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반면, 의류 및 신발류, 목재, 펄프 및 인쇄물,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기계 및 장비 등에서 비교열위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NAFTA 가입 이후 멕시코의 수출경쟁력 향상 정도를 관세철폐 양허안과 연계해 분석하였는데, 양허기간과 수출경쟁력 향상 정도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향상 정도는 장기간인 1994~2002년에 보다 크고 뚜렷하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양허기간이 짧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의 경쟁력 향상 정도가 매우 큰 반면, 양허기간이 길거나 예외품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농수산물업과 화학물 및 화학제품의 경우 경쟁력 향상 정도가 매우 낮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모든 품목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는 멕시

코의 정부정책 및 산업별 대응책에 따라 부문별로 상이한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현재 다양한 형태의 FTA 체결을 구상 중인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내업체는 한·일 FTA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협상 타결시한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에 대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FTA를 통해 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열위에 있는 국가들과의 FTA만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우위에 있는 국가와의 FTA로 국내외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일부 한·일 FTA에서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는 FTA 대상국을 다양화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다. 2005년 한·ASEAN FTA가 추진됨으로써 해외 시장 확보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심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9
제2장 NAFTA 가입을 전후한 멕시코경제의 변화	11
1. 개황	11
2. 산업 및 교역구조 변화	13
가. 산업구조 변화	13
나. 교역구조 변화	15
제3장 NAFTA 가입을 전후한 멕시코의 수출경쟁력 변화	22
1. 수출경쟁력의 동태적 분석	22
가. 멕시코의 수출품목별 경쟁력 변화	22
나. 멕시코의 주요 산업별 경쟁력 변화	27
2. 관세양허에 따른 수출경쟁력 변화 분석	31
가. NAFTA 관세철폐 양허안 분석	31
나. NAFTA 관세철폐 양허기간 및 수출경쟁력 향상간의 상관관계 분석	35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43
참고문헌	46
부록	48
Executive Summary	50

표 차례

표 2-1. 멕시코의 GDP, 교역 및 FDI 추이	12
표 2-2. 멕시코의 산업별 GDP 구성	13
표 2-3. 멕시코의 제조업 성장률(1993년 가격 기준)	14
표 2-4. 멕시코의 교역 추이	15
표 2-5. 멕시코의 산업별 수출	16
표 2-6. 멕시코 제조업의 수출변화율	17
표 2-7. 마킬라도라 산업의 수출입 추이	18
표 2-8. 멕시코의 산업별 수입	19
표 2-9. 멕시코의 용도별 수입	20
표 2-10. 멕시코의 주요 교역대상국	21
표 3-1. NAFTA 발효 이전 멕시코의 경쟁력 변화 추이(1991~94년)	25
표 3-2.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의 경쟁력 변화 추이	25
표 3-3. 멕시코의 주요 산업별 RCA지수	28
표 3-4. NAFTA 발효 전후 멕시코 주요 산업의 경쟁력 변화	30
표 3-5. 관세철폐 양허기간 및 수출경쟁력의 향상 정도간 상관관계	36
표 3-6. 관세철폐시기에 따른 경쟁력 변화(평균)	37
표 3-7. 관세철폐시기에 따른 산업별 경쟁력 변화	40

그림 차례

그림 3-1. 멕시코의 품목별 수출경쟁력 변화(1994~2002년)	24
---	----

부표 차례

부표 1. 對멕시코 주요 투자국별 FDI(실행 기준) 현황(1997~2002년) ..	48
부표 2. 주요 업종별 FDI(실행 기준) 현황(1997~2002년)	48
부표 3. 미국의 對멕시코 제조업부문 FDI 현황(1991~2002년)	49

제1장 서론

- 1994년 1월에 발효된 NAFTA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동 협정 체결은 미국 주도로 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더딘 진전에 대한 대안으로 다자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이 용이한 지역주의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 한편 1985~94년 기간 동안 역사상 이례적인 대내외 자유화 정책을 추진해온 Salinas 정부는 NAFTA 가입을 통하여 무역과 관련한 미국에 대한 반감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존의 자유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진척시키고자 함.

- 멕시코는 NAFTA 체결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근간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 달성과 경제개혁·개방화를 가속화한 사례로 알려져 있음.
 - 현재 멕시코는 중남미 제2의 경제대국이면서 제1위의 교역국이며, 1994년 이후 FTA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국가임.¹⁾

- 따라서 멕시코의 NAFTA 경험은 산업발전단계에서 상이점과 유사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한·일 FTA 및 한·중 FTA에 대해

1) 멕시코는 중남미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확대하여 현재 미주지역 1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음 - 콜롬비아 및 베네수엘라간 G3(1995. 1 발효), 코스타리카(1995. 1), 볼리비아(1995. 1), 니카라과(1998. 7), 칠레(1999. 8) 등과의 FTA, 중미 북단 3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과 3+1방식의 FTA(2001. 2) 또한 멕·EU간 FTA(2000. 7 발효), EFTA(2001. 1) 등 유럽경제권과도 FTA를 체결하고 있음. 2004년 1월 현재 총 32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의 수출경쟁력 변화를 동 협정의 자유화일정, 즉 관세철폐 양허안에 기반해 설명해보고자 함.
 - 먼저 NAFTA 가입을 전후한 멕시코의 경제 변화를 개괄하는 과정에서 산업 및 교역구조 변화를 살펴봄.
 - 그리고 수출경쟁력지수를 활용하여 NAFTA 발효를 전후한 멕시코의 동태적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후, 이러한 수출경쟁력의 변화와 관세양허기간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함.

제2장 NAFTA 가입을 전후한 멕시코경제의 변화

1. 개황

- 1994~2002년 기간 동안 멕시코는 연간 4,659억 달러의 GDP와 2.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GDP의 52.9%에 달하는 교역량을 보유함(표 2-1 참고).
 - 특히 교역량의 증가는 NAFTA 가입 후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1991~93년 GDP의 29.4%에 불과하던 것이 10년 후 2002년에는 50.9%로 증가하여 멕시코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었음.

- 비록 1994년 페소화 위기로 1995년에는 -6.2%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었으나, 당시 NAFTA의 일원이던 멕시코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들의 신속한 지원으로 1996년에 성장세를 회복,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옴.²⁾

- 한편 2001년 9.11테러에 따른 미국경기의 침체와 함께, 2002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브라질화 평가절하, 베네수엘라 파업 등 중남미경제의 불안으로 인해 2002년 멕시코는 0.7%의 완만한 경제성장을 시현함.
 - 그러나 2002년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증가 및 국제원

2) 당시 미국은 환안정화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 ESF)을 정당화(authorization)하는 페소화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이로 인해 IMF 긴급융자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음. 덕분에 동 위기는 단기간내에 매우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멕시코의 개혁이 가속화됨. 실제로 1982년 위기시 멕시코가 국제금융에 접근하는데 7년이 걸린 반면, 1995년에는 7개월이 걸렸음. 당시 멕시코 정부는 “NAFTA 국가들의 번영이 외환위기의 경제적 반향을 약화시켰으며, 다른 국가들의 불황을 면케 했다”고 함(Kim 2000).

유가인상에 따른 석유판매증가로 멕시코의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멕시코 수출입에 대한 영향 못지않게 눈에 띄게 나타난 NAFTA 효과는 對멕시코 FDI의 증가임.
 - 멕시코는 1989년 외국인투자법 승인 후 연간 30억~40억 달러의 FDI를 유치해왔는데, NAFTA 체결 후 1994~97년에 연간 10조 달러를 유치해오다가 2001년에 266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함.³⁾ 이는 멕시코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은 바 큼.

표 2-1. 멕시코의 GDP, 교역 및 FDI 추이

(단위: 억 달러, %)

	1991~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GDP (성장률)	3,601 (3.2)	4,219 (4.5)	2,872 (-6.2)	3,329 (5.1)	4,009 (6.8)	4,203 (4.9)	4,806 (3.7)	5,805 (6.6)	6,215 (-0.1)	6,474 (0.7)
수출	469 (13.0)	609 (14.4)	795 (27.7)	960 (28.8)	1,104 (27.5)	1,175 (28.8)	1,364 (28.4)	1,665 (28.7)	1,584 (25.5)	1,608 (24.8)
수입	592 (16.4)	793 (18.8)	725 (25.4)	895 (26.9)	1,098 (27.4)	1,254 (29.8)	1,402 (29.2)	1,745 (30.1)	1,684 (27.1)	1,687 (26.1)
FDI(순)	45	110	95	92	128	123	132	164	266	144

주: () 안의 수치는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을 나타냄.

자료: Global Insight, *Country Profile*.

3) NAFTA 발효 이후 對멕시코 외국인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49.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금융업(24.4%), 상업(10.8%), 교통통신업(3%), 건설업(0.9%), 광업(0.8%), 전기가스업(0.6%), 농축산업(0.2%) 순임. 아울러 對멕시코 외국인투자를 주요 투자국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64.3%로 가장 비중이 높고, EU가 22.1%, 스페인이 5.0%, 영국이 4.0%, 캐나다가 3.6%, 독일이 2.8%, 일본이 2.7%, 인도가 1.3%임(부표 1, 부표 2 참고).

2. 산업 및 교역구조 변화

가. 산업구조 변화

- 멕시코는 1·2차산업에 비해 3차산업이 과대성장한 불균형적인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산업별 GDP 비율로 볼 때, 2002년 현재 서비스업은 총 GDP 의 7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제조업 21.6%, 농수산임업 4.2% 순임(표 2-2 참고).

표 2-2. 멕시코의 산업별 GDP 구성

(단위: %)

	1991 ~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농수산임업	4.6	4.4	4.8	4.7	4.4	4.3	4.3	4.0	4.2	4.2
제조업	20.7	20.2	20.7	21.7	22.2	22.5	22.6	22.6	21.9	21.6
건설업	5.7	6.0	4.9	5.1	5.2	5.2	5.2	5.1	4.8	4.8
도소매업 및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30.3	31.0	29.0	29.3	30.3	30.6	30.8	32.2	32.3	32.2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1.9	12.3	13.1	12.5	12.2	12.1	12.1	12.0	12.5	13.0
기타 서비스업	27.5	26.7	27.8	26.8	25.9	25.4	25.0	24.1	24.0	23.9

자료: OECD(2004), *National Accounts*.

- 산업별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2002년 현재 GDP 대비 제조업 의 비중은 약 21.6%로, NAFTA 발효 이전인 1991~93년 20.7%에 비해 증가하였음. 반면 서비스업과 농수산임업의 경

우 동 기간 동안 각각 75.4%에서 약 73.9%로, 4.6%에서 약 4.2%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업 및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과 금융·보험업·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건설업과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은 감소함.

표 2-3. 멕시코의 제조업 성장률(1993년 가격 기준)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성장률	3.4	4.2	-0.7	4.1	-4.9	10.8	9.9	7.3	4.2	6.9	-3.8	-0.7
음식료품 및 담배	3.2	4.1	3.1	3.3	0.0	3.3	3.2	6.6	4.0	3.9	2.3	1.8
섬유, 의류 및 피혁	2.6	-0.1	-2.7	1.1	-6.3	15.7	10.5	3.7	3.1	5.4	-8.6	-5.8
목재 및 목제품	0.7	2.8	-2.5	1.9	-7.8	6.9	6.7	4.4	0.5	3.9	-6.7	-4.9
종이, 출판 및 인쇄	3.8	3.5	-2.0	2.9	-7.6	1.3	12.7	5.9	5.0	2.7	-4.3	-1.8
화학, 플라스틱 및 석유제품	1.0	1.8	-1.7	3.4	-0.9	6.6	6.8	6.0	2.4	3.3	-3.8	-0.2
비철광물	3.6	6.3	2.7	4.6	-11.7	8.1	5.9	5.2	1.8	4.1	-1.7	3.8
1차 금속	-4.8	1.5	3.2	6.2	4.1	18.8	11.1	4.0	0.4	3.0	-7.1	1.3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8.1	6.2	-4.1	6.7	-10.3	22.3	19.1	11.5	6.9	13.6	-6.9	-2.2
기타	-0.8	16.1	-2.5	2.2	-10.2	14.4	10.5	7.7	5.8	8.2	-2.1	-3.2

자료: Banco de Mexico(2003), *Annual Report*.

- 한편 제조업부문의 성장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과 200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전 산업이 NAFTA 발효 이후 플러스 성장세를 시현하였음.
 - 특히 음식료 및 담배는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1993년까지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던 의류 및 피혁의

경우 1996년과 1997년 각각 15.7%, 10.5%의 급성장을 이루었음.

- 또한 1차 금속과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는 여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고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낸 분야임.

나. 교역구조 변화

- NAFTA 출범 이후 멕시코 교역구조는 상당 수준의 총교역량 증가 및 무역수지 적자 폭의 축소로 요약될 수 있음.
 - 2002년 현재 멕시코의 수출 및 수입은 각각 1,608억 달러와 1,687억 달러, 총교역량은 약 3,295억 달러로 세계 교역량의 5.8%를 차지하고 있음(표 2-4 참고). 이를 1993년 수치와 비교해볼 때, 수출과 수입이 각각 208.3%, 157.9% 증가함으로써 총교역량은 180.9% 향상되었음.
 - 무역수지 측면에서 보면, 1993년 135억 달러에 달하던 무역수지 적자는 1995~97년 사이 흑자로 전환되기도 하였음. 비록 1998년부터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섰으나 그 폭은 1993년의 135억 달러보다는 대폭 축소된 상태임.

표 2-4. 멕시코의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출	519	609	795	960	1,104	1,175	1,364	1,665	1,585	1,608
수입	654	793	725	895	1,098	1,254	1,420	1,745	1,683	1,687
무역수지	-135	-185	71	65	65	-79	-56	-80	-97	-79

자료: Banco de Mexico, *Review of the Economic Situation of Mexico*.

- 멕시코의 수출은 제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업과 농수산업이 그 다음 순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NAFTA 발효 이후 심화되는 추세임.
- 1993년을 전후로 총수출대비 각 부문의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78.8%에서 88.4%로 크게 증가한 반면, 원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광업은 15.7%에서 8%로, 농림수산업은 4.5%에서 3.2%로 오히려 감소함(표 2-5 참고).
 - 특히 제조업 수출증가에 비해 광업의 수출비중이 크게 감소한 데에는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멕시코 정부의 정책에 그 원인이 있음.

표 2-5. 멕시코의 산업별 수출

(단위: 억 달러)

	1991	1993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수출	426.9	518.9	795.4	1,104.3	1,174.6	1,363.9	1,664.5	1,584.4	1,607.6
농어업	18.8	17.9	33.2	34.1	34.4	36.6	36.2	33.3	32.6
축산·어업	4.9	5.4	6.9	4.2	3.6	4.8	6.0	5.8	6.1
광업	78.1	67.6	79.7	108.4	68.7	93.9	154.3	120.6	135.1
제조업	323.1	425.0	673.8	955.7	1,065.5	1,229.2	1,465.0	1,421.2	1,432.0
기타 미분류	2.0	3.0	1.8	1.9	2.4	2.5	3.1	3.7	3.7

자료: INEGI

- 제조업의 수출변화율을 살펴보면, NAFTA 발효 후 1990년대 후반까지 1차 금속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표 2-6 참고).

- 특히 의복 및 신발, 목재제품, 비철강 및 비휘발유제품, 금속 제품기계 및 장비의 수출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음식료 및 담배의 경우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2000년대 초반에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표 2-6. 멕시코 제조업의 수출변화율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음식료 및 담배	15.9	13.5	6.5	7.0	9.3	2.0	7.3
의복 및 신발	29.4	39.0	11.7	14.0	11.6	-10.8	-1.9
목재제품	39.0	21.6	1.0	5.3	2.3	-21.1	-5.3
종이·인쇄 및 출판	2.7	18.8	9.5	14.7	1.1	-5.0	-1.8
화학·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2.5	11.5	1.1	12.5	21.5	-5.5	2.2
비철강 및 비휘발유제품	22.3	17.9	13.0	12.9	11.6	3.6	-5.4
1차 금속	-2.0	11.9	-7.8	-12.1	7.9	-11.7	1.5
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24.7	16.9	14.7	18.7	22.3	-1.7	-0.4
기타 제조품	7.4	20.6	7.4	-8.8	-10.2	3.3	53.3
총제조품	20.2	18.0	11.5	15.2	19.3	-3.0	0.3

자료: EIU, *Country Report*.

- 멕시코 수출의 특징 중 하나는 제조업, 특히 마킬라도라(보세가 공수출산업)의 비중이 꽤 높다는 점인데, 이는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일변도 산업정책에 기인함.

- 2002년 현재 마킬라도라 수출이 멕시코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0%로, 1991~93년 40%에 비해 증가한 상태임(표

2-7 참고).

- 한편 1990년대 고용 창출 및 제조업 수출의 중심역할을 담당했던 마길라도라 산업은 NAFTA에 의한 수입무관세특혜제도 폐지(2000년), 미국의 경기침체 및 동 부문 비용증가로 수출, 투자 및 고용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⁴⁾
- 이에 따라 마길라도라 기업의 주력업종이 종전의 섬유, 가구, 전자부품, 완구,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화학제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통신장비, 컴퓨터 및 자동차 등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전환 중임.
- 특히 NAFTA 303조에 따라 폐지된 수입무관세특혜제도의 보완책으로서 마길라도라 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22종의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를 0~5%로 대폭 인하하는 “산업부문별 진흥 프로그램(PROSEC)”을 운영 중임.

표 2-7. 마길라도라 산업의 수출입 추이

(단위: %)

	1991 ~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출	40.0	43.0	39.0	38.0	41.0	45.0	47.0	48.0	48.0	49.0
수입	24.0	26.0	36.0	34.0	33.0	34.0	36.0	35.0	34.0	35.0

자료: INEGI

- 멕시코의 수입은 수출에서와 같이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반면, 광업이 농림수산업보다 비중이 작은 구조임.

4) 2003년 11월 현재 마길라도라 부문의 업체 수는 2,800여 개이며, 총고용인력은 107만 명(멕시코 제조업 전체 고용의 11%)임. 동 산업은 2000년 말 약 130만 명을 정점으로 고용인력을 축소하였고, 총업체 수도 최근 20% 감소하였음.

- 2002년 현재 제조업의 수입은 1,606.2억 달러로 총수입의 9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업은 53.7억 달러로 3.2%, 광업은 19.7억 달러로 1.2%를 차지함(표 2-8 참고).
- 이처럼 제조업의 수입비중이 큰 것은 수출 관련 산업들의 중간재 수입비중이 높다는 점⁵⁾과 정유화학 및 화학제품에 대한 국내수요가 수입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⁶⁾에 그 원인이 있음.

표 2-8. 멕시코의 산업별 수입

(단위: 억 달러)

	1991	1993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수입	499.7	653.7	724.5	1,098.1	1,253.7	1,419.7	1,744.6	1,684.0	1,686.8
농어업	16.9	23.2	24.8	36.6	42.8	40.3	40.3	46.6	48.7
축산·어업	4.3	3.1	1.7	5.2	4.9	4.6	4.9	4.8	5.0
광업	3.9	3.9	6.0	8.5	9.2	8.9	13.3	15.8	19.7
제조업	469.7	615.7	675.0	1,015.1	1,164.3	1,332.4	1,651.4	1,594.1	1,606.2
기타 미분류	4.9	8.4	17.0	32.7	32.5	34.4	32.0	22.8	7.1

자료: INEGI

- 멕시코의 수출이 중간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중간재 수입도 수출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용도별 수입을 보면, 2002년 현재 중간재는 총수입의 75.0%

5) 실제로 마길라도라 산업과 관련된 외국인기업들과 전기·전자·산업용 기계 등은 대부분 수입중간재에 의존하고 있음(김원호 편저 2004).

6) 멕시코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및 고무플라스틱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다량의 정유제품, 폴리프로필렌, 천연합성수지를 수입하고 있음.

를, 소비재와 자본재는 각각 12.6%와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NAFTA 출범 이전과 비교해볼 때 전자는 204.1%, 후자는 각각 198.6%와 103.9%의 성장률을 보임(표 2-9 참고).

표 2-9. 멕시코의 용도별 수입

(단위: 억 달러)

	1991 ~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입	591	793	725	895	1,098	1,254	1,421	1,745	1,684	1,687
소비재	71	95	53	67	93	111	122	167	198	212
중간재	416	565	584	719	854	969	1,094	1,336	1,261	1,265
자본재	103	133	87	109	151	173	205	241	225	210

자료: EIU, *Country Report*에서 재인용.

- 끝으로 교역대상국 변화를 살펴보면, 교역액을 기준으로 볼 때 멕시코의 경우 對미 의존도와 역내 교역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2-10 참고).
 - 실제로 1993년 83%수준이었던 對미 수출의존도는 NA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02년 89.0%에는 달하였으며, 1994~2002년간 총수출의 86.8%를 차지하였음. 또한 對미 수입의존도도 동 기간 평균 72.2%를 차지함으로써 1993년의 71.0%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함.
 - 결국 멕시코는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제2수출대상국, 캐나다와 중국에 이어 제3수입대상국이 되었으며, 미국의 제2교역국이 됨.
 - 역내 교역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1993년 총수출입의 86.0%와 72.7%를 차지하던 교역비중은 NAFTA 발효 후 지속적으로 증가, 2002년까지 평균 88.8%와 74.3%의 높은 수출

입비중을 기록하였음. 따라서 북미지역이 멕시코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된 데에는 NAFTA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한편 기존의 주요 교역국인 기타 미주국가, 일본 및 EU의 교역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기타 국가(아시아)의 교역비중은 증가하였음. 실제로 주요 교역국의 평균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기타 미주국가가 4.9%와 28%, 일본이 0.9%와 4.4%, EU가 3.7%와 9.6%로 줄어든 반면, 기타 국가의 경우 각각 2.7%와 11.4%로 늘어났음.

표 2-10. 멕시코의 주요 교역대상국

(단위: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출대상국										
- 미국	83.0	85.1	83.6	84.0	85.6	87.9	88.4	88.9	88.7	89.0
- 캐나다	3.0	2.4	2.5	2.3	2.0	1.3	1.8	1.9	1.9	1.7
- 기타 미주국가	5.4	4.5	5.6	6.5	6.0	5.0	3.8	3.5	4.1	-
- 일본	1.3	1.6	1.5	1.4	1.0	0.7	0.6	0.5	0.4	0.3
- EU	5.1	4.5	4.2	3.7	3.6	3.3	3.8	3.1	3.4	-
- 기타	2.2	1.9	2.6	2.1	1.8	1.8	1.6	2.1	1.5	9.0
수입대상국										
- 미국	71.0	72.0	74.5	75.6	74.8	74.5	74.3	73.3	67.7	63.2
- 캐나다	1.8	2.0	1.9	1.9	1.8	1.8	2.1	2.2	2.3	2.5
- 기타 미주국가	4.1	4.0	3.0	2.5	2.4	2.3	2.3	2.7	3.1	-
- 일본	5.1	4.8	5.0	4.4	3.9	3.6	3.6	3.7	4.8	5.5
- EU	12.9	12.4	10.2	8.6	9.0	9.3	9.0	8.6	9.7	-
- 기타	5.1	4.8	5.4	7.0	8.1	8.5	8.7	9.5	22.1	-

자료: OECD(2004), *Economic Survey of Mexico*.

제3장 NAFTA 가입을 전후한 멕시코의 수출경쟁력 변화

1. 수출경쟁력의 동태적 분석

가. 멕시코의 수출품목별 경쟁력 변화

- 본 장에서는 NAFTA 발효를 전후한 멕시코의 경쟁력 변화를 분석함. 수출경쟁력지수로서는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를 이용하며, 데이터는 Comtrade HS 6단위 무역통계자료를 사용함.

- i국가의 j상품의 K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식 3-1>과 같이 계산됨.

$$RCA_{ijk} = (X_{ijk}/X_{jk}) / (X_{ik}/X_k) \quad \langle \text{식 3-1} \rangle$$

X_{ijk} : i국가 j상품의 K시장에 대한 수출액

X_{jk} : 세계 전체 j상품의 K시장에 대한 총수출액

X_{ik} : i국가의 K시장에 대한 총수출액

X_k : 세계 전체의 K시장에 대한 총수출액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장을 멕시코의 제1수출대상국인 미국으로 한정함.)

- RCA는 각국의 비교우위 정도를 검토하기 위한 지수로서, 특정국의 품목별 세계시장점유율을 특정국의 세계시장점유율로 나눈 값인 동시에 특정국의 품목별 수출비중을 세계시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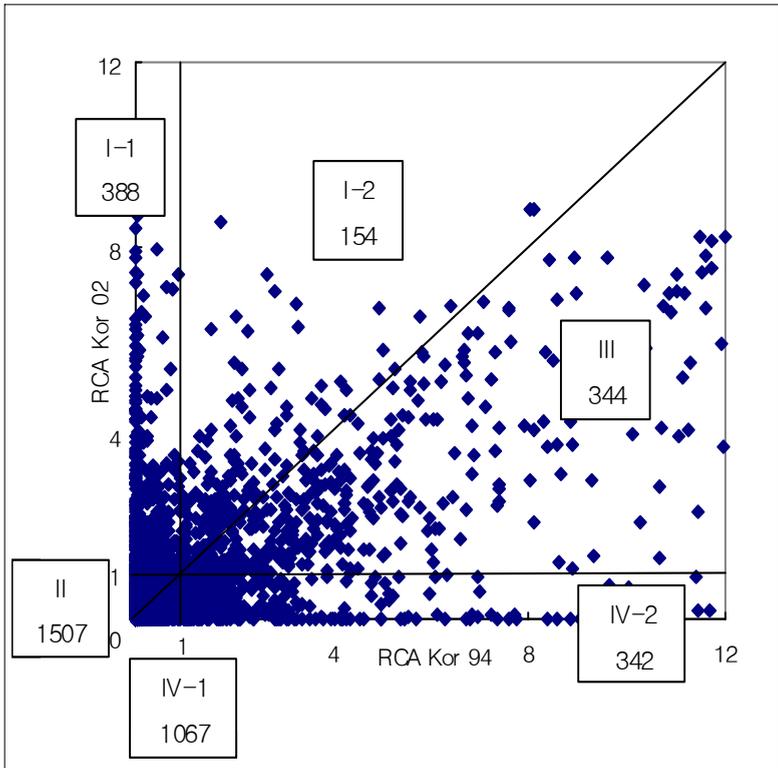
의 품목별 수입비중으로 나는 값임.

- 따라서 RCA 값이 1보다 클 경우 해당국의 수출품목이 타국의 동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함.
- 분석대상기간은 NAFTA 체결 전인 1991년과 NAFTA 체결 이후 단기(1994~98년)와 장기(1994~2002년)로 구분함.
 - RCA지수를 연도별로 비교함으로써 멕시코의 경쟁력 변화를 고찰함. 연도별 RCA지수를 <그림 3-1>과 같이 도시해보면, NAFTA를 전후한 멕시코의 경쟁력 향상 및 약화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x축의 RCA 1994보다 y축의 RCA 2002가 더 높은 경우, 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그림 3-1>에서 I-1, I-2, II 사분면에 속하는 품목은 NAFTA 이후 경쟁력이 향상된 품목으로 III, IV-1, IV-2 사분면은 경쟁력이 약화된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연도별 RCA지수에 따라 분류된 I~IV의 각 사분면은 다음과 같은 경쟁력 구조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I-1의 경우는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I-2영역은 비교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품목으로 경쟁력이 높음.
 - II는 현재 비교열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임. III영역에 속하는 품목은 비교우위상태에 있긴 하

지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품목임.

- IV-1의 경우는 비교열위품목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IV-2영역은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전환되어 현재 경쟁력이 낮은 품목임.

그림 3-1. 멕시코의 품목별 수출경쟁력 변화(1994~2002년)



- 1991~94년 동안 멕시코의 수출경쟁력 변화를 살펴보면, 총 3,481개 품목 중 1,695개 품목의 경쟁력이 강화된 반면 1,786개

품목의 경쟁력은 약화되었음. 즉 NAFTA 이전에는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품목의 수가 더 많았음(표 3-1 참고).

표 3-1. NAFTA 발효 이전 멕시코의 경쟁력 변화 추이(1991~94년)

멕시코 수출품목 3481	경쟁력 강화품목 1695	I-1	250
		I-2	215
		II	1230
	경쟁력 약화품목 1786	III	391
		IV-1	2650
		IV-2	233

표 3-2.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의 경쟁력 변화 추이

a. 단기경쟁력 변화(1994~98년)

멕시코 수출품목 3808	경쟁력 강화품목 2132	I-1	343
		I-2	208
		II	1581
	경쟁력 약화품목 1676	III	398
		IV-1	1029
		IV-2	249

b. 장기경쟁력 변화(1994~2002년)

멕시코 수출품목 3802	경쟁력 강화품목 2049	I-1	388
		I-2	154
		II	1507
	경쟁력 약화품목 1753	III	344
		IV-1	1067
		IV-2	342

- <표 3-1>과 <표 3-2>를 비교해보면, NAFTA를 전후로 멕시코의 수출경쟁력 강화품목은 증가하고 약화품목은 감소하여 전자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 NAFTA 발효 이후 경쟁력이 강화된 품목 가운데 1994년 당시 미국시장에서 비교열위상태에 있던 I-1(단기: 343개, 장기: 388개)과 II(단기: 1581개, 장기: 1507개)영역의 품목들이 NAFTA 이전기간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쟁력 약화품목에서는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전환된 IV-2(단기: 249개, 장기: 342개)의 품목 수가 NAFTA 이전에 비해 증가한 반면, 비교열위품목으로 지속적인 경쟁력 약화를 나타낸 IV-1(단기: 1029개, 장기: 1067개)의 품목 수가 감소함.

- NAFTA 발효 이후 단기간(1994~98년) 동안 총 3,808개 품목 중 2,132개의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며, 1,676개 품목의 경우는 약화됨(표 3-2a 참고).
 - 동 기간 동안에는 수출경쟁력 강화품목의 비중이 월등히 증가하여 경쟁력 약화품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NAFTA 이전과 상반된 추세임. 따라서 멕시코는 NAFTA를 전후로 전반적인 수출경쟁력 추이의 전환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됨.

- NAFTA 발효 이후 장기간(1994~2002년) 동안 총 3,802개 품목 가운데 2,049개의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며, 1,753개 품목의 경우는 약화됨(표 3-2b 참고).
 - 이는 멕시코가 NAFTA 가입 이후 경쟁력 강화품목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한 것을 의미함. 그러나 장기간 동안 수출경쟁품목의 증가비율은 단기간 동안의 변화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수출경쟁력 변화를 종합하면, NAFTA 가입을 전후로 경쟁력 향상을 나타낸 품목의 수는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단기간 동안보다 현저했던 것으로 나타남.
 - NAFTA 이후 회원국의 품목별 수출경쟁력은 관세양허 정도 및 기간, 시장경쟁력, 성장잠재력 등의 요소에 따라 강화 또는 약화되었을 것임. 멕시코의 경우 1994년과 1998년 폐소화 급락으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강화품목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임.

나. 멕시코의 주요 산업별 경쟁력 변화

- NAFTA 체결이 멕시코의 수출경쟁력에 끼친 영향을 세부 산업별로 분석하기 위해 14개 주요 수출산업에 대한 RCA지수를 분석함 (표 3-3 참고).
 - 그 결과 2002년 현재 기준으로 멕시코는 미국시장에서 자동차,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반면, 의류 및 신발류, 목재, 펄프 및 인쇄물,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기계 및 장비 등에서 비교열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 멕시코의 주요 산업별 RCA지수

	1991	1994	1998	2002
농업	1.739	1.514	1.104	0.915
음식료품 및 담배	0.931	0.851	0.773	0.581
섬유류	0.458	0.480	0.658	0.648
의류 및 신발류	0.506	0.500	0.673	0.496
목재, 펄프 및 인쇄물	0.757	0.616	0.581	0.345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0.538	0.382	0.504	0.397
화합물 및 화학제품	1.058	1.007	0.760	0.50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0.678	0.588	0.538	0.470
비금속광물제품	0.969	0.776	0.743	0.661
1차 금속산업	0.560	0.484	0.575	0.549
조립금속제품	0.927	0.795	0.745	0.750
기계 및 장비	0.437	0.460	0.410	0.432
자동차	0.946	1.031	1.318	1.069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	1.920	1.684	1.688	1.450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 음식료품 및 담배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농업의 경우 1991년 비교우위인 1.739에서 2002년 0.915 비교열위로 전환됨. 섬유류와 의류 및 신발류는 NAFTA 이후 경쟁력이 강화되었음. 그러나 의류 및 신발류의 경우 1998년 0.673에서 2002년 0.496으로 경쟁력이 다시 약화되어 NAFTA 효과가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도 의류 및 신발류와 마찬가지로 NAFTA 직후 일시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었다가 다시 약화됨. 목재, 펄프 및 인쇄물,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

라스틱은 관측기간 동안 계속 경쟁력이 약화된 품목으로 현재 비교열위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화합물 및 화학제품은 1991년 당시 1.058로 비교우위에 있던 산업이었으나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어 2002년 0.505의 비교열위로 전환됨.

- 비금속광물제품은 꾸준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는 비교열위상태임. 1차 금속산업 또한 NAFTA 이후 경쟁력이 일시적으로 조금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비교열위를 나타내고 있음. 조립금속제품과 기계 및 장비는 NAFTA의 발효와 상관없이 경쟁력의 변화가 거의 없는 산업임.
- 자동차는 NAFTA 이후 1998년 1.318까지 경쟁력이 상승하였고, 2002년 현재는 1.069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음.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450으로 비교우위상태임.

□ NAFTA 이후 경쟁력이 강화된 산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표 3-4 참고).

-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1차 금속산업의 경우, NAFTA를 전후로 경쟁력 약화에서 강화추세로 전환되어 2002년 현재까지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의류 및 신발류,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은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나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시 약화추세로 전환됨. 따라서 동 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NAFTA 직후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 섬유류, 자동차의 경우 1991년 이후 경쟁력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음.

□ 1991~94년 동안에는 섬유류, 기계 및 장비, 자동차 3개 산업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나 나머지 11개 산업에서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NAFTA 발효 이전 멕시코의 주요 산업 전반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였음(표 3-4 참고).

- 그러나 NAFTA 발효 이후 단기 4년간에는 섬유류, 의류 및 신발류,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1차 금속산업, 자동차,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의 총 6개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4개 산업에서만 경쟁력이 강화됨.

표 3-4. NAFTA 발효 전후 멕시코 주요 산업의 경쟁력 변화

	NAFTA 발효 이전 (1991~94)	NAFTA 발효 이후	
		단기 (1994~98)	장기 (1994~2002)
농업	약화	약화	약화
음식료품 및 담배	약화	약화	약화
섬유류	강화	강화	강화
의류 및 신발류	약화	강화	약화
목재, 펄프 및 인쇄물	약화	약화	약화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약화	강화	강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약화	약화	약화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약화	약화	약화
비금속광물제품	약화	약화	약화
1차 금속산업	약화	강화	강화
조립금속제품	약화	약화	약화
기계 및 장비	강화	약화	약화
자동차	강화	강화	강화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	약화	강화	약화

- 종합하면 멕시코는 NAFTA 이후 보다 많은 산업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NAFTA 이후 단기간인 1994~98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남.
 - 상기 주요 산업의 경쟁력 변화는 품목별 경쟁력의 동태적 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NAFTA의 발효가 회원국간의 경쟁 및 보완을 통해 멕시코의 상품경쟁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이러한 변화가 NAFTA 발효 후 단기간(1994~98년)에 현저하게 나타난 것은 NAFTA 이후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로 인한 역내 무역의 증가가 각 회원국의 수출경쟁력에 일시적인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추정됨.

2. 관세양허에 따른 수출경쟁력 변화 분석

가. NAFTA 관세철폐 양허안 분석

- NAFTA는 포괄적인 무역자유화 협정으로, 회원국들간 관세철폐를 넘어 서비스와 투자, 무역규범, 경제협력, 환경과 노동 등 다양한 경제이슈를 포함하고 있음.
- NAFTA의 관세철폐 양허안은 품목별로 관세철폐시기를 설정하고 있는데, 상품을 크게 네 범주로 구분하여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15년까지 유예하고 있음.

- A: 1994년 1월 1일 협정 발효 즉시 관세철폐
- B: 1994년 1월 1일부터 1998년 1월 1일까지 5단계를 거쳐 매년 동일한 비율로 관세철폐
- C: 1994년 1월 1일부터 2003년 1월 1일까지 10단계를 거쳐 매년 동일한 비율로 관세철폐
- D: 이미 MFN 자유화
- 이러한 일반적인 범주 외에도, NAFTA는 특정 경우에 대해 다양한 범주를 적용함으로써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B1: 1994년 1월 1일부터 1999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매년 동일한 비율로 관세철폐
- B+: 7차례에 걸쳐 관세철폐- 1994년 1월 1일 20% 인하, 1995년 1월 1일 0% 인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월 1일까지 매년 10% 인하, 2001년 1월 1일 30% 인하
- B8: 2차례에 걸쳐 관세철폐- 1998년 1월 1일 50% 인하, 2001년 1월 1일 50% 인하
- Ba: 5차례에 걸쳐 관세철폐- 1994년 1월 1일 50% 인하, 나머지 50%는 1998년 1월 1일부터 4단계를 거쳐 매년 동일한 비율로, 단계적으로 철폐
- Bg: 5차례에 걸쳐 관세철폐- 1994년 1월 1일 FTA 세율에 따라 인하, 1998년 1월 1일까지 FTA C의 단계적으로 철폐
- Bp: 3차례에 걸쳐 관세철폐- 1997년 1월 1일 20% 인하, 1998년 1월 1일 10% 인하, 1999년 1월 1일 70% 인하
- BM: B단계에 따라 관세철폐- 멕시코와 미국이 공동으로 생산한 물품에 대해 MFN 세율로부터 단계적 철폐
- ABM: 즉시관세철폐- 동 협정 부록 402.2 8에 해당하는 제품

에 대해 B단계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되 MFN 세율로부터 단계적 철폐

- ACM: 즉시관세철폐- 동 협정 부록 402.2 8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C단계에 따라 인하하되 MFN 세율로부터 단계적 철폐
- CM: C단계에 따라 관세철폐- 동 협정 부록 402.2 8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MFN 세율로부터 단계적 철폐
- Ca: 10차레에 걸쳐 관세철폐- 1994년 1월 1일 50% 인하, 나머지 50%는 2003년 1월 1일까지 9차레에 걸쳐 매년 동일한 비율로 인하
- C10: 9차레에 걸쳐 관세철폐- 1994년 1월 1일 20% 인하, 2년째 0% 인하, 2003년 1월 1일까지 8차레에 걸쳐 매년 동일한 비율로 인하
- Cm: 3차레에 걸쳐 관세철폐- 1994년 1월 1일 40% 인하, 2~4년째 동결, 5년째 20% 인하, 6~9년째 동결, 2003년 1월 1일 40% 인하
- C8: 8차레에 걸쳐 관세철폐- 1994년 1월 1일부터 7년간 매해 10% 인하, 2001년 1월 1일 30% 인하
- Cb+: 3차레에 걸쳐 관세철폐- 1994년 1월 1일 30% 인하, 2000년 1월 1일 20% 인하, 2005년 1월 1일 50% 인하
- C+: 199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1일까지 15차레에 걸쳐 매년 동일한 비율로 관세철폐
- Cz+: 13차레에 걸쳐 관세철폐- 1994년 1월 1일 20% 인하, 2~3년째 동결, 나머지 80%를 2008년 1월 1일까지 12년 동안 매년 동일한 비율로, 단계적으로 철폐
- Cq: 몇몇 관세품목에 대하여, 협정에 규정된 일정량의 멕시코

수입품이 미국과 캐나다에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음. 단 규정된 수준을 초과시 범주 C에 따라 세율 인하

- Ctq: 1994년 1월 1일부터 10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며, 이후 관세할당제를 적용
- CAg: 10차례에 걸쳐 관세철폐- 1994년 1월 1일부터 6차례에 걸쳐 매년 4%씩 인하, 나머지 76%는 2003년 1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매년 동일한 비율로 철폐
- C+Ag: 15차례에 걸쳐 관세철폐- 1994년 1월 1일부터 6차례에 걸쳐 매년 4%씩 인하, 나머지 76%는 2008년 1월 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매년 동일한 비율로 철폐
- Sug: 동 협정 주석에 규정된 설탕 및 설탕제품의 특정 관세품목에 대한 특별 고려
- Pro: 소수 멕시코의 제한품목
- B6: 6차례에 걸쳐 관세철폐- 1995년 1월 1일부터 1999년 1월 1일까지 6단계를 거쳐 20%씩 매년 동일하게 관세철폐
- Bw: 6차례에 걸쳐 관세철폐- 1994년 1월 1일 15%로, 1995년 1월 1일 14.5%로, 1996년 1월 1일 10.8%로, 1997년 1월 1일 7.2%로, 1998년 1월 1일 3.6%로, 1999년 1월 1일 0.0%로 인하
- Bo: 6차례에 걸쳐 관세철폐- 1994년과 1995년 1월 1일 15%로, 1996년 1월 1일 12%로, 1997년 1월 1일 8%로, 1998년 1월 1일 4%로, 1999년 1월 1일 0%로 인하
- Bf: 6차례에 걸쳐 관세철폐- 1994년과 1995년 1월 1일 20%로, 1996년 1월 1일 10%로, 1997년 1월 1일 6.6%로, 1998년 1월 1일 3.3%로, 1999년 1월 1일 0%로 인하
- 아울러 역내 총교역에서 1% 미만을 차지하고 있긴 하나 낙농

품, 가금류, 달걀, 설탕 등 일부 농산품에 대해서는 자유화 예외가 적용되고 있음.

- 멕시코 양허안을 살펴보면, 전체 품목의 50%(약 5,900개)를 1994년 1월 1일에 철폐하도록, 15%(약 2,500개)를 1998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35%(약 3,300개)를 2003년과 2008년 1월 1일까지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NAFTA 관세철폐 양허기간 및 수출경쟁력 향상간의 상관관계 분석

- 이번 장에서는 멕시코를 대상으로 관세철폐 양허기간 및 NAFTA 발효 이후 경쟁력 향상간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함.
 - 관세철폐 양허기간이 길수록 경쟁력 향상 정도가 작을 것이라는, 즉 양 변수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함.
- 분석대상은 HS 6단위를 기준으로 전 산업을 포괄함.
 - 총분석대상 품목 수는 2,960개(제조업의 경우 2,676개)로, 당초 고려된 품목 수가 5,021개였으나 관세철폐 양허시기 및 경쟁력지수의 데이터 입수 한계로 인해 그 수가 축소됨.
- 관세철폐 양허기간은 즉시철폐를 0으로, 그 외의 기간은 실제 양허기간을 사용(최대 15년)하며, 자유화 예외품목을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해 양허기간을 100으로 설정함. 세부 품목별로 관세철폐 양허기간이 다를 경우 평균값을 사용함.

- 수출경쟁력지수로는 제3장 1절에서 사용된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활용함. 경쟁력 향상 정도는 $(RCA_t - RCA_{t-1}) / RCA_{t-1}$ 로 계산하고, NAFTA 발효 이후인 1994~98년(단기)과 1994~2002년(장기)의 두 기간으로 나눠 살펴봄.
- <표 3-5>는 관세철폐 양허기간 및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의 수출경쟁력 향상 정도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동 결과에 따르면 양허기간과 멕시코의 수출경쟁력 향상 정도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양허기간이 긴 산업일수록 수출경쟁력의 향상 정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상관관계는 NAFTA 발효 직후인 1994~98년(-0.004)에 비해 1994~2002년(-0.008)에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NA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장기적으로 멕시코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됨.
 - 한편 제조업부문의 결과가 산업 전체의 결과에 비해 큰 점이 주목되는데, 이는 양허기간이 농수산임업 및 광업보다는 제조업부문의 경쟁력 향상에 보다 큰 연관 및 기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이러한 상관관계는 산업 전체에서와 마찬가지로 NAFTA 발효 직후인 1994~98년(-0.005)보다 1994~2002년(-0.014)에서 더욱 크게 나타남. 그러나 경쟁력 향상 정도(3배)는 산업 전체의 경우(2배)보다 컸음.

표 3-5. 관세철폐 양허기간 및 수출경쟁력의 향상 정도간 상관관계

	1994~98	1994~2002
산업 전체	-0.004	-0.008
- 제조업	-0.005	-0.014

- 다음으로 멕시코 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정도를 관세철폐 양허 기간에 따라 분석해보면, 양허기간이 짧을수록 경쟁력 향상 정도가 크며, 그 향상 정도는 단기보다는 장기에서 보다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표 3-6 참고).
- 우선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1994~2002년의 수출경쟁력 향상 정도를 살펴보면, 즉시철폐의 경우 경쟁력 향상 정도는 30.97, 5년 이내에 철폐될 경우 22.68, 그리고 10년 이내에 철폐될 경우는 18.87로, 양허기간이 즉시철폐에서 10년 이내로 길어짐에 따라 경쟁력 향상 정도가 30.97에서 18.87로 작아지고 있음.
 - 한편 1994~98년 기간에서는 5년 이내 관세철폐의 경우 경쟁력 향상 정도는 17.30, 10년 이내의 경우 13.71로 양허기간이 짧을수록 경쟁력 향상 정도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즉시철폐의 경우(14.30) 경쟁력 향상 정도가 5년 이내 철폐의 경우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음.

표 3-6. 관세철폐시기에 따른 경쟁력 변화(평균)

	수출경쟁력 향상 정도(산업 전체)			수출경쟁력 향상 정도(제조업)		
	품목 수	1994~98	1994~2002	품목 수	1994~98	1994~2002
즉시철폐	1,035	14.30	30.97	859	16.94	37.04
~5년	691	17.30	22.68	647	18.39	23.97
~10년	1,225	13.71	18.87	1,169	14.30	19.61

- 이는 1994년 폐소화 위기의 타격으로 인해 무역자유화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데이터 한계로 인해 단기적인 경쟁력 향상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에

서 그 원인을 추측해볼 수 있음.⁷⁾

- 그러나 1994~2002년에서 즉시철폐시 수출경쟁력의 향상 정도가 여타 양허기간의 수치에 비해 월등히 큰 만큼, NAFTA를 통한 신속한 무역자유화는 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상기 산업 전체의 추세는 제조업부문만을 따로 보았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남. 단 양허기간에 따른 경쟁력 향상 정도가 전자에 비해 후자에서 더 큰 것이 차이점임.
 - 1994~2002년의 수출경쟁력 향상 정도를 살펴보면, 즉시철폐의 경우 경쟁력 향상 정도는 37.04, 5년 이내에 철폐될 경우 23.97, 그리고 10년 이내에 철폐될 경우는 19.61로, 양허기간이 즉시철폐에서 10년 이내로 길어짐에 따라 경쟁력 향상 정도가 37.04에서 19.61로 작아지고 있음.
 - 한편 1994~98년 기간에서는 5년 이내 관세철폐의 경우 경쟁력 향상 정도는 18.39, 10년 이내의 경우 14.30으로 양허기간이 짧을수록 경쟁력 향상 정도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즉시철폐의 경우(16.94) 경쟁력 향상 정도가 5년 이내 철폐의 경우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1994년 폐소화 위기와 데이터 한계에서 그 원인을 유추해볼 수 있음.
 - 그러나 산업 전체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1994~2002년 기간 동안 즉시철폐시 수출경쟁력의 향상 정도가 여타 양허기간의 수치에 비해 월등히 큰 만큼, NAFTA를 통한 신속한 무역자

7) 입수가 불가능하여 제외된 품목 중 즉시철폐에 해당하는 것이 42%를 차지함.

유화는 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끝으로 관세철폐시기에 따른 주요 산업의 경쟁력 향상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양허기간이 짧은 산업일수록 경쟁력의 향상 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표 3-7 참고).
 - 특히 관세철폐 양허기간이 매우 짧은 기계 및 장비(평균 관세철폐기간 2.54)는 1994~98년과 1994~2002년 양 기간 동안 각각 20.11과 70.39의 경쟁력 향상을 보였으며, 그 정도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음.
 - 또한 자동차(평균 관세철폐기간 4.33)와 전기기계·장비 및 부품(평균 관세철폐기간 3.97)과 같이 양허기간이 짧은 산업들의 경우 경쟁력이 단기적으로는 160.37과 30.45, 그리고 장기적으로 176.32와 25.90 향상되었는데, 이는 여타 산업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임.
 - 반면 관세철폐시기가 길거나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경쟁력 향상 정도가 매우 작게 나타남.
 - 실제로 6.45의 긴 양허기간에다 8개의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농수산임업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양 기간 각각 1.52와 1.29 향상되었으며, 그 향상 정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4.78의 양허기간과 2개의 예외품목을 포함하는 화학물 및 화학제품의 경우 경쟁력은 6.12와 8.99 향상되었는데, 이는 여타 산업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
 - 이러한 결과는 <표 3-7>에서 보듯이 NAFTA 이전에는 비교

우위산업이던 농수산업업과 화학물 및 화학제품이 이후에는 오히려 비교열위산업으로 전환된 이유를 일면 설명해주고 있음.

표 3-7. 관세철폐시기에 따른 산업별 경쟁력 변화

	총품목 수 (예외품목)	평균 관세철폐 기간	평균 수출경쟁력 향상 정도	
			1994~98	1994~2002
농수산업업	160 (8)	6.45	1.52	1.29
음식료품 및 담배	123	6.09	12.64	35.58
섬유류	362	7.22	23.11	28.69
의류 및 신발류	180	7.37	17.12	17.37
목재, 펄프 및 인쇄	104	5.72	2.33	5.17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6	6.12	8.84	8.23
화학물 및 화학제품	282 (2)	4.78	6.12	8.99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33	6.45	6.66	14.90
1차 금속	114	6.43	18.15	13.09
조립금속제품	117	6.69	3.17	5.69
기계 및 장비	339	2.54	20.11	70.39
자동차	53	4.33	160.37	176.32
전자기계, 장비 및 부품	232	3.97	30.45	25.90

□ 한편 몇몇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철폐기간 및 경쟁력 향상 정도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정책적 변수 등 외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대표적인 예로 섬유류는 7.22의 긴 양허기간에도 불구하고 양 기간 각각 23.11과 28.69의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며, 의류 및 신발류는 7.37의 기간에도 17.12와 17.37의 경쟁력이 향상되었음.

- 섬유류의 경우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은 미국이 NAFTA협상시 멕시코 섬유에 대한 쿼터를 상당 부분 증가시킨 점, 그리고 멕시코가 미국시장과 보세가공방식을 연계함으로써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과 상응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 점⁸⁾ 등에서 그 원인을 추측해볼 수 있음.
 - 아울러 NAFTA 가입효과와 하나인 외국인투자 증가도 이 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 NAFTA 가입 이전부터 낮은 수준이긴 하나 꾸준히 성장해온 음식료 및 담배의 경우 경쟁력은 6.09의 긴 양허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향상(12.64와 35.58)을 보였는데, 실제로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991~93년 평균 17억 달러에서 1994~98년에는 116% 증가한 36억 7,500만 달러로 증가하였음(부표 3 참고).⁹⁾
- 종합하면 멕시코의 경우 NAFTA 관세철폐 양허기간과 수출경쟁력 향상 정도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경쟁력 향상 정도는 단기보다는 장기에서 더욱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무역자유화가 신속히 이루어진 경우 경쟁력 향상 정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나, 무역자유화가 더디게 일어날 경우에는 농수산업과 같이 경쟁력 향상 정도도 낮을 뿐더러 비교우위상태가 오히려 비교열위로 역전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임.

8) 선우 건(2001)

9) 참고로 수출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기계 및 장비, 자동차, 그리고 전자기계, 장비 및 부품의 경우에도 NAFTA 발효 이후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투자 증가는 신속한 무역자유화와 함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몇몇 품목의 경우 이러한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양허기간 이외의 외적 요소, 즉 무역자유화 이전의 품목별 경쟁력 상태, 정책적 요소 혹은 외국인투자 등의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됨.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멕시코는 NAFTA 가입을 통해 교역량 및 수출경쟁력이 크게 향상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1994년 이후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 경제개혁 및 개방화를 가속화할 수 있었음.
- 본 연구에서는 NAFTA 가입의 긍정적인 측면 중 멕시코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는데, NAFTA 발효 이후 다수 멕시코 품목의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발효 직후인 1994~98년에 현저하게 나타났음.
 - 또한 NAFTA 가입 이후 멕시코의 수출경쟁력 향상 정도를 관세철폐 양허안과 연계한 분석에서 양자간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허기간이 짧을수록 그 기간에 해당되는 품목들의 경쟁력 향상 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러한 경쟁력의 향상 정도는 단기보다는 장기인 1994~2002년에 더욱 크고 뚜렷하게 나타났음.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모든 품목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 경우 멕시코 정부의 정책 혹은 대응책이 큰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현재 다양한 형태의 FTA 체결을 구상 중인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국내업체는 한·일 FTA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하

면서 협상 타결시한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협상을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멕시코에 대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FTA를 통해 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쟁열위에 있는 국가들과의 FTA만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우위에 있는 국가와의 FTA로 국내외 기업간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 현재 한국정부는 DDA협상과 FTA 다각화를 동시에 추진 중임.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양허기간만을 늘리면서 보호하는 것은 이러한 정부정책 추진방향에 역행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분석결과에서도 보듯이, NAFTA 발효 이전에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던 멕시코 농산물은 더딘 개방화(긴 양허기간과 다수 예외품목 포함)로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경쟁열위로 전환되었음.
- 한편 이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는 FTA 대상국을 다양화함으로써 상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2005년 한·ASEAN FTA가 추진됨으로써 해외시장 확보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심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개방화로 초래되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FTA 로드맵 구상과 시기 설정이 매우 중요함.

- 한편 현 침체된 국내여건 속에서 한국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수출경쟁력 향상을 통한 교역증가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도 현 FTA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특히 최근 환율동조화현상 등 불안정한 국외여건을 감안할 때 NAFTA가 멕시코의 폐소화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듯이, 한국도 다양한 FTA 체결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유사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함.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원호 편저. 2004. 『한·멕시코 경제협력 정책과제』. 한·멕시코 21세기 위원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선우 건. 2001. 「NAFTA 이후 멕시코 산업정책의 변화와 진출 전략」. 지역연구회시리즈 01-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신현수·이원복. 2003. 『한·중·일 제조업 경쟁력의 비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 외교통상부. 2004. 『멕시코합중국 개황』.
- 최영섭. 2001.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본 제조업 경쟁력 추이 분석』. 산업연구원.

[외국문자료]

- Banco de Mexico. *Review of the Economic Situation of Mexico*.
———. *Annual Report 2003*.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Detailed Annual Data on the Direct Investment Position and Related Balance of Payments Flows, 1982-2003.” U.S. Department of Commerce. Available at: <http://www.osec.doc.gov>.
- Cameron, Maxwell. A & Crian W. Tomlin. 2000. *The Making of NAFTA: How to Deal was Don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EIU. *Country Report*.
- Global Insight. *Country Profile*.
- INEGI.
- Kim, Won-Ho. 2000. “The Effects of NAFTA on Mexico’s Economy and Politics.” KIEP Working Paper 00-05.
- Love, James H. and Francisco Lage-Hidalgo. 1999. “The Ownership Advantages in Latin America FDI: A Sectoral Study of US Direct Investment in Mexico.”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5(5): pp. 76-95.

OECD. 2004a. *Economic Survey of Mexico*.

———. 2004b. *National Accounts*.

UN. Comtrade database. Available at: <http://unstats.un.org/unsd/comtrade>.

Wilamoski, Peter and Sarah Tinkler. 1999. “The Trade Balance Effects of U.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exico.” *Atlantic Economic Journal*, 27(1): pp.24-37.

부록

부표 1. 對멕시코 주요 투자국별 FDI(실행 기준) 현황(1997~2002년)

(단위: 백만 달러)

지역/국가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계	12,161.2	8,242.1	13,165.6	16,448.7	26,569.2	13,258.9
북미	7,695.5	5,548.7	7,690.0	12,505.9	21,346.1	8,434.9
캐나다	240.1	208.3	623.3	664.8	984.3	208.2
미국	7,455.4	5,340.4	7,066.7	11,841.1	20,361.8	8,226.7
EU	3,173.5	2,053.8	3,713.2	2,773.9	4,001.1	3,661.2
독일	483.8	137.3	753.1	344.4	-151.0	583.1
스페인	328.5	344.5	997.2	1,907.5	742.6	292.9
영국	1,830.0	183.6	-193.4	265.2	87.2	1,143.9
인도	28.7	0.0	0.1	27.6	3.1	0.1
일본	353.0	100.0	1,232.6	416.8	176.7	149.8

자료: 김원호 편저(2004), p. 25에서 재인용.

부표 2. 주요 업종별 FDI(실행 기준) 현황(1997~2002년)

(단위: 백만 달러)

업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계	12,161.2	8,242.1	13,165.6	16,448.7	26,569.2	13,258.9
농축산업	10.0	28.9	82.5	91.3	6.0	6.0
광업	130.2	42.4	127.1	190.3	31.9	203.4
제조업	7,305.9	5,122.8	8,984.6	9,308.7	5,854.4	5,434.9
전기가스업	5.2	26.6	139.5	118.6	283.0	110.4
건설업	110.4	120.4	131.5	172.0	92.2	142.6
상업	1,902.5	946.5	1,240.3	2,274.8	1,561.6	1,333.7
교통통신업	681.5	436.2	229.1	-2,361.2	2,912.3	782.3
금융서비스업	1,103.4	729.4	759.7	4,763.5	14,409.4	4,288.7
기타 서비스업	912.1	788.9	1,471.3	1,890.7	1,418.3	956.9

자료: 김원호 편저(2003), p. 26에서 재인용.

부표 3. 미국의 對멕시코 제조업부문 FDI 현황(1991~2002년)

(단위: 백만 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	8,978	9,546	9,235	10,068	10,580	12,078	13,930	15,661	18,155	19,599	17,171	17,609
음식료품 및 담배	1,382	1,369	2,349	2,660	2,929	3,579	4,484	4,723	1,281	1,427	1,250	929
섬유류, 의류 및 신발류	76	61	110	165	99	150	174	215	323	396	341	298
목재 및 목재제품	25	38	48	84	41	61	87	188	-	-2	-	-
펄프	637	667	602	416	389	606	718	766	638	752	890	1,053
인쇄	83	102	107	128	112	98	-	63	87	68	52	50
화학물 및 화학제품	2,004	2,050	2,379	2,340	1,962	2,255	2,364	2,336	4,206	4,124	4,068	4,10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393	418	468	368	400	439	401	444	739	736	1,012	979
금속제품	349	-	-	-	284	332	-	427	615	680	-	-
1차 금속	86	34	-	-	-	-	-	53	121	131	-	-
조립금속제품	264	-	322	251	-	-	304	373	494	548	558	537
기계류	472	-	-	-	-	-	-	-	988	1,228	-	1,053
전자기계, 장비 및 부품	632	679	523	927	819	794	782	-	-	745	676	-
운송장비	2,314	2,602	914	1,762	2,262	1,980	2,060	3,444	5,011	5,960	3,400	4,035
기타 (miscellaneous) 제조업품	51	62	112	113	92	-	164	197	688	785	933	1,026
기타	560	1,498	1,623	1,105	1,191	1,784	2,696	2,858	3,579	2,700	4,549	4,078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Detailed Annual Data on the Direct Investment Position and Related Balance of Payments Flows, 1982-2003", U.S. Department of Commerce.



Executive Summary

An Analysis on the Change in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Mexico after its Membership to the NAFTA

Boo Young Eom and Jung Sil Kang

Mexico has been accelerating economic reform and liberalization through the NAFTA, which had taken an effect in January 1, 1994, while achieving stable economic growth. Since its membership to the NAFTA, Mexico has experienced a substantial growth of trade, which became a basis for its continuous economic growth irrespective of its unstable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mong positive aspects of the membership, this study has analyzed, putting an emphasis on the improvement of the Mexico's export competitiveness. Firstly, it was compared the change i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Mexico before and after membership. Actually, export competitiveness has been enhanced in a large number of items, which was in particular remarkable in the short-term, 1994~1998. By industry, in 2002, Mexico had comparative advantages in automobile, electronics and machinery, and equipment and part, but comparative disadvantages in apparel and shoes, wood, pulp and print, coke, petroleum, chemicals, and lubber and plastic in the U.S. market.

Nextly, the degree of improvement of export competitiveness was analyzed in relation to the tariff elimination schedule. According to the

result, there existe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and the degree of improvement was larger and more remarkable in the long-term, 1994~2002, than in the short-term, 1994-1998. By industry, the degree of improvement was very high in industries with short-term liberalization periods, such as machinery and equipment, automobile, and electronics and parts, while that was very low in ones with long-term liberalization periods or items of exclusion, such as agriculture, fishery and forestry and chemistry. However, this result was not applied to all items identically, which may be affected by the Mexican government's policies or countermeasures.

The analytical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 who is currently in consideration to contract various types of FTAs. Some industrial groups, expecting hard blows on the domestic market from the Korea-Japan FTA, insist on delaying the time of concluding the FTA. However, according to this empirical result, the competitiveness of Mexico has been enhanced through the NAFTA. It implies that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companies could be improved through FTAs not only with countries with comparative disadvantages but also with ones with comparative advantages, through the deepening of competition amo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anies. On the other hand, negative impacts that are expected from the Korea-Japan FTA could be offset by the diversification of partners for FTAs. Moreover, through the Korea-ASEAN FTA, to be taken an effects in 2005, it could be pursued the enlargement of overseas markets and the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嚴 富 暎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University of Pittsburgh 국제관계학 석사
IUHEI, University of Geneva 국제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현, E-Mail: byum@kiep.go.kr)

著書 및 論文

“Rationally-oriented Picking-Winner Policy” (*Press Abstracts* No.4 ITC UNCTAD/WTO, 1999)
“Scope for the Liberalization of Korean Agricultural Policy in the Next WTO Negotiation” (2001) 외

姜 丁 實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現, E-mail: jskang@kiep.go.kr)

著書 및 論文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공저, 2003)
「삼각모형을 통해 분석한 복합무역의 실증적 구현방안」 (공저, 2002) 외

정책자료 04-10

**멕시코의 NAFTA 가입 이후
산업경쟁력 변화 분석**

2004년 12월 24일 인쇄

2004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安 忠 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쇄 (주)예원기획 전화: 745-8090 대표 강대원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禁함】

ISBN 89-322-2085-9 94320
89-322-2068-9(세트)

정가 5,000원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는 교역량이 증대되고 다수 품목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분석결과 이러한 수출경쟁력의 향상 정도는 관세철폐 양허기간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한 멕시코가 수출경쟁우위에 있는 미국 및 캐나다와의 FTA로 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이에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NAFTA를 통한 멕시코의 경쟁력 향상은 경쟁열위에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경쟁우위에 있는 국가와의 FTA를 통해서도 국내외 기업간 경쟁심화 및 구조조정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3060-1178 FAX : 3460-1144



9 117989321220856 9 4 3 2 0

ISBN 89-322-2085-9
89-322-2068-9(세트)

정가 5,000원